

시사 칼럼

“북한은 개방을 하고 있는가?”



백운 (법대 58)
미 노동청 선임경제학자

지난 해 12월 북한의 3세대 지도자 등장한 김정은이 각종 서구적인 문화를 선호하는 변화사태(김정은은 미국의 마루스, 현대 음악의 팬과 라디오, 이슬람의 명종종교 등)를 통해 북한이 과연 개방하고 있는 것인가, 개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호를 설득시키고 군부의 경제력을 노동당이 장악하며 실패적인 장성태의 중국 경제사찰 방문 등은 북한이 개방을 넘어 개혁까지 가려고 하는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의견을 견제하며 때를 적절히 전개하고 있다.

첫째, 낙관론은 4가지의 논거를 제시한다.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 현대화와 사설 시장의 확산과 농업

의 개혁, 해외기업의 북한유입 등이 그것이다.

근래 비공식적인 통계는 북한의 해외기업이 100여 개에 달한다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천을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상인들을 통한 CD도입이 통제 불능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북한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여 준다.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 변화보다 더 북한의 개방을 낙관하고 있는 논거는 사설시장의 확산과 북한 경제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북한 농업의 변화이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은 대외적으로 수백만 명 이상의 아시아를 넘어 이후 각 국가마다 뒷발을 인정하여 뒷발에서 생산한 것을 기꺼울 수 있는 부락시장이 인정되고 현재 북한 전역에 수만개의 사설 시장이 번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의 농장제도는 집단농장에서 농장의 한 조가 10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농장에서 각 조가 생산한 모든 생산물은 집단농장으로 바치는 생산구조였다.

북한은 지난 6월 28일 농장 1개 조의 생산량을 4명으로 줄이고, 한 조에서 생산한 생산량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 그 조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농장제 개혁의 개혁을 단행했다.

얼마 전 미국 국무성 전 관료의 의뢰한 뉴욕의 북한 유엔 대표부가 미국의 코카콜라

라-베토나드-캔터 프라이 치킨 등 회사 대표들과 북한의 분점 설치에 대한 회담이 있었다고 한다.

북한 인민들의 문화생활 변화, 사설시장의 확산, 농장제도의 변화, 서양 기업들의 유입 등이 북한의 개방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에 반대하는 북한개방 비관론도 만만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지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퍼터슨 연구소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Marcus Noland은 “김정일도 경제개방을 위하여 몇몇 인정, 통제가 거러, 화폐개혁 등을 단행하였지만 모두 실패한 바와 같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주체사상)를 고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개방은 분명한 실패(Unsuccessful)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동북아 안보 담당관이었던 Victor Cha 조지타운 정치학 교수는 근래 출간한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문화생활 변화와 북한 정권이 고수하고자 하는 주체사상 독재 체제 유지 시대에 균형을 가져 2020-2030년 경에 ‘남할 수 없는’ (Unustainable)’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 국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외부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제2면화

동문 시 감상

애모 (哀慕)



임용우 (의대 57)

여보소 빛남네아,
한 마디 말도 없이
어찌 그리 급히
홀로 가버렸소.

내 이제 누구와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만사 담소(談笑)에
붙어있소.

희자정리(希者 정리)라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푸른하든
당신 모습
오늘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다운 당신 목소리

그리움에 파도도
밀려올 때면
이렇게도 힘을 줄
모양있었구로.

보고 싶소. 보고 싶구로.
말씀 해보소.
말 좀 해주구로.
우리 언제 다시 만나고자.

<앞서 간 이진웅 (李珍鵬)
仁翁을 생각하며.
Highland CA에서>

(Change)의 의미로 이해하지
않아하고 제도는 그대로 고수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개조(Redo) 정도 내용”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
하고 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연구는 작년 9월에 출간한
‘세계 전망 2030년 (Global
Outlook 2030)’에서 “김정은
의 3대 세습 이후 ‘불안정’과
국제사회에 의한 임시체제 수
립을 거쳐 2020-2030년 경에
‘남할 수 없는’ (Unustainable)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개방 비관론과 관련해서
3가지의 북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은이 외부에 나타날 때마
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 가려고 하는 경향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보다도
‘주체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선정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부 최고 세력이었던 이명호
의 실각은 군부 경제력을 노동
당으로 결집하고자 하는 의도
를 나타낸다.

미국 워싱턴 DC의 북한 전문
가들은 단정히 알리고 북한이
분명한 핵심성이나 미시일 발
사, 또는 서해 및 서해를 대한
포악 등으로 군사도발을 할 가
능성이 농후함을 우려하고 있
는 실정이다.***

알림

“미주 동문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별써 가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제22차 평의원 회의를 열어 Los Angeles
의 제11대 미주 동창회가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로 인수-인계되는 시기입니다.

더우기 이번 제22차 평의원 회의에서 Washington D.C.의
제12대 미주 동창회를 이어받을 차차기 총 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의 선출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미주 동창회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제4조에 의거
해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후보 대상** = 차차기 총회장(제13대 미주 동창회장)
- ▶ **심사 기준** = 차차기 회장 후보는 재미 서울대 지역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혹은 총 동창회단에서 탁월한 공적을 보여준 동문, 혹은 일반 회원 가운데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회원.
- ▶ **추천서 제출처** = 미주 동창회 사무실(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로 e-Mail(smuausa@yahoo.com), 또는 Fax(310-515-7883), 또는 일반 Mail로 제출 바람.
- ▶ **후보추천 마감일** = 201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추천위원회 위원장 송순영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회장 김문홍

기획특집 > 외교,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 대화>

“원래 제 땅 아니니까 잃을 것은 없다는 속셈일 뿐...”



황승국(법대 76졸)

●동문 황승국 전 대법관은 독도에 문제 전문가로 외교통상부에 서 10년간 독도 문제를 담당했다. 황승국 전 대사가 국제법학과 교수였던 1980년 독도 관련 논의를 준비하던 프랑스 국제법 학자이자 모모노노노는 대사가 가장 전신살이었던 평가로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고. 모모노노 박사는 독도 범용이 일본 측에 있다'는 논지의 논문을 쓰던 중 대사와 대화 해는 논문을 '독도'가 '영토'로 바꾸었다. 이 글은 국제법 학자로서가 뒤늦게 알려져 2009년 '대한민국법학논총'에 실렸었다. 국제적으로도 호응이 커진 독도의 이해를 위해 이를 전한다.

있으니 제편에 갈 수 없고, 상대편이 실패할지는 장문만 제편에 가지는 것은 무슨 논리가? 비슷 한 것은, 일본 법학자도 같은 것이 수 상하지 않겠나?

●Mornane: 일본측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 법학자는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상대가 참을수 없는 독도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 참을수 없는 Senkaku Islands 문제만 ICJ에 갈 수는 있지 않겠나? 독도를 실패할지 모르나 ICJ에 가져갈지 모르나 참을수 없는 독도는 일본과 한국이 합의하는 것 밖에...
●Mornane: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그한다면 리사야가 북방 영토문제에서는 리사야가 북방 섬들을 점령해 왔다고 것으로는 적어도, ICJ에 가져갈지 모르나 참을수 없는 리사야가 북방 섬들은 일본은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

●Mornane: 사실이다. 두 이유라고 보는가.
●Mornane: 일본은 ICJ에 받아들이는 데 따른 리사야가 북방 섬들을 점령해 왔다고 것으로는 적어도, ICJ에 가져갈지 모르나 참을수 없는 리사야가 북방 섬들은 일본은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

●Mornane: 일본은 ICJ에 받아들이는 데 따른 리사야가 북방 섬들을 점령해 왔다고 것으로는 적어도, ICJ에 가져갈지 모르나 참을수 없는 리사야가 북방 섬들은 일본은 거부하고 받아들이는 것.



있다. 유하지 못하는 입장을 반영 한 것이다. 이 조항은 독도에 관해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 정부에 자문해왔으며 한국법학도는 독도에 관한대로 논의를 한다면 일본이 정치적 검토를 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대중적 않은 게 아니다.

●Mornane: 이렇게 교수와 학도는 나도 보았어. 상항이 바뀌어 나가야만 일본정부가 중재재판 하고도 제의하겠나?

●Mornane: 검토할만 하나 다만 '식민주의에 일한 영토문제' 조치는 필적으로 후로'라는 데 대해 반대 될까?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대상이다.

●Mornane: 양국간 독도문제가 풀을되면 일본은론은 비로써 냉정한 한국인과 국민은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한다.
●Mornane: 일본은론과 국민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무의의는 것 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 물론 이다. 그런데도 받아들이는 북방 도서 는 어떤가. 서양이 서양이 벌어져도 일본 언론과 국민이 냉정한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리사야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지 않겠나. 이때 '리 사야' 국민은 nature한데 일본은

식민지된 독도는 아직 일본은 신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한국 입장 1905년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 권을 확보했을 것이므로 양국 중 과한 것은 나라 영토라는 점인 해본다. 필자는 것이다. 일본은 서 구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기 한도는 식민지의 거부 일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국경을 감안 한다면 이에 관한 학자 연구는 나 일본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산 성에 대한 학자의 추측에 이르면 일본 측에서는 무지는 아니었다. 독도는 가지는 것이 없는데도 영유권을 일방적 역사적 기록을 다른 유산 성에 비해 비로써 중 부한다. 이것만으로도 무지는 의의는 분명히 배제되어 있다. 1905 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복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한 쪽의 가장 의의에 취하는 것은 없다. 제국주의 때로 보면 더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서 일본영토의 속주권자가 아니라 한일영토의 속주권자를 결정했을

thing)이었으므로 이는 나라를 신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한국 입장 1905년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 권을 확보했을 것이므로 양국 중 과한 것은 나라 영토라는 점인 해본다. 필자는 것이다. 일본은 서 구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기 한도는 식민지의 거부 일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국경을 감안 한다면 이에 관한 학자 연구는 나 일본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산 성에 대한 학자의 추측에 이르면 일본 측에서는 무지는 아니었다. 독도는 가지는 것이 없는데도 영유권을 일방적 역사적 기록을 다른 유산 성에 비해 비로써 중 부한다. 이것만으로도 무지는 의의는 분명히 배제되어 있다. 1905 년을 기준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정복해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한 쪽의 가장 의의에 취하는 것은 없다. 제국주의 때로 보면 더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서 일본영토의 속주권자가 아니라 한일영토의 속주권자를 결정했을

●Mornane: 태평양 전쟁 후 1951 년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 주가 거문도-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이 없 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Mornane: 조약 당사자가 아닌 한국 더러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권대만, 한국영토의 의의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영토는 의 회 관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의 결론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중 어느 한 쪽의 가장 의의에 취하는 것은 없다. 제국주의 때로 보면 더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서 일본영토의 속주권자가 아니라 한일영토의 속주권자를 결정했을

●Mornane: 태평양 전쟁 후 1951 년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 주가 거문도-독도를 한국영토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이 없 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Mornane: 조약 당사자가 아닌 한국 더러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권대만, 한국영토의 의의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영토는 의 회 관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뜻의 결론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중 어느 한 쪽의 가장 의의에 취하는 것은 없다. 제국주의 때로 보면 더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서 일본영토의 속주권자가 아니라 한일영토의 속주권자를 결정했을

“일본이 3개 영토문제 중 독도만 ICJ에 가져다 요구하고 북방영토와 Senkaku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을 적극 회피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Mornane: 일본은 독도를 영유 권을 주장하는 주이다. 일본 측 자들은 충분히 연구해 잘 알고 있 으나, 한국측 사과는 일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지 들 고 싶지 않나?

●Mornane: 독도문제는 일본 주장에 대항할 필요도 있다. 이는 것이 우 리 주장 일이다. 1905년 제정된 국 본법정 제4 조에서 30여년 전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우 리나 당면한 한국영토이므로 독립 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rnane: 일본은 국제재판에 의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 지를 하는 것은 비록으로 자신했다 는 증거가 아닌가?

●Mornane: 일본은 제편에 의 해 해결 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반대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일본분류본은 인식이다. 정확히 하면 일본은 '국 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나 'ICJ' 에 가서 고 하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ICJ라는 최후의 법원에 가 는데 대해 이전이 없었을 뿐이다.

●Mornane: ICJ에 가는 것을 거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Mornane: 아니다. 이미 'ICJ' 가 대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CJ에 가는 것이나 승인이 있다고 봐 ICJ를 해결하는 것이고, 한국은 국이 불공평한 ICJ에 갈 이유가 없다'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불평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 하려는 중국과 1950년(Tianjin) 일본이 말하는 Senkaku Islands (중국측)분쟁은 ICJ에 가서 한국과 상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은 독도를 영유 권을 주장하는 주이다. 일본 측 자들은 충분히 연구해 잘 알고 있 으나, 한국측 사과는 일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지 들 고 싶지 않나?

●Mornane: 독도문제는 일본 주장에 대항할 필요도 있다. 이는 것이 우 리 주장 일이다. 1905년 제정된 국 본법정 제4 조에서 30여년 전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우 리나 당면한 한국영토이므로 독립 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rnane: 일본은 국제재판에 의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 지를 하는 것은 비록으로 자신했다 는 증거가 아닌가?

●Mornane: 일본은 제편에 의 해 해결 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반대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일본분류본은 인식이다. 정확히 하면 일본은 '국 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나 'ICJ' 에 가서 고 하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ICJ라는 최후의 법원에 가 는데 대해 이전이 없었을 뿐이다.

●Mornane: ICJ에 가는 것을 거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Mornane: 아니다. 이미 'ICJ' 가 대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CJ에 가는 것이나 승인이 있다고 봐 ICJ를 해결하는 것이고, 한국은 국이 불공평한 ICJ에 갈 이유가 없다'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불평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 하려는 중국과 1950년(Tianjin) 일본이 말하는 Senkaku Islands (중국측)분쟁은 ICJ에 가서 한국과 상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은 독도를 영유 권을 주장하는 주이다. 일본 측 자들은 충분히 연구해 잘 알고 있 으나, 한국측 사과는 일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지 들 고 싶지 않나?

●Mornane: 독도문제는 일본 주장에 대항할 필요도 있다. 이는 것이 우 리 주장 일이다. 1905년 제정된 국 본법정 제4 조에서 30여년 전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우 리나 당면한 한국영토이므로 독립 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rnane: 일본은 국제재판에 의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 지를 하는 것은 비록으로 자신했다 는 증거가 아닌가?

●Mornane: 일본은 제편에 의 해 해결 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반대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일본분류본은 인식이다. 정확히 하면 일본은 '국 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나 'ICJ' 에 가서 고 하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ICJ라는 최후의 법원에 가 는데 대해 이전이 없었을 뿐이다.

●Mornane: ICJ에 가는 것을 거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Mornane: 아니다. 이미 'ICJ' 가 대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CJ에 가는 것이나 승인이 있다고 봐 ICJ를 해결하는 것이고, 한국은 국이 불공평한 ICJ에 갈 이유가 없다'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불평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 하려는 중국과 1950년(Tianjin) 일본이 말하는 Senkaku Islands (중국측)분쟁은 ICJ에 가서 한국과 상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은 독도를 영유 권을 주장하는 주이다. 일본 측 자들은 충분히 연구해 잘 알고 있 으나, 한국측 사과는 일본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지 들 고 싶지 않나?

●Mornane: 독도문제는 일본 주장에 대항할 필요도 있다. 이는 것이 우 리 주장 일이다. 1905년 제정된 국 본법정 제4 조에서 30여년 전 일본 정부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도 우 리나 당면한 한국영토이므로 독립 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ornane: 일본은 국제재판에 의 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 지를 하는 것은 비록으로 자신했다 는 증거가 아닌가?

●Mornane: 일본은 제편에 의 해 해결 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반대한다는 인식은 왜곡된 일본분류본은 인식이다. 정확히 하면 일본은 '국 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나 'ICJ' 에 가서 고 하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그러나, ICJ라는 최후의 법원에 가 는데 대해 이전이 없었을 뿐이다.

●Mornane: ICJ에 가는 것을 거부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

●Mornane: 아니다. 이미 'ICJ' 가 대안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ICJ에 가는 것이나 승인이 있다고 봐 ICJ를 해결하는 것이고, 한국은 국이 불공평한 ICJ에 갈 이유가 없다' 때문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불평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 하려는 중국과 1950년(Tianjin) 일본이 말하는 Senkaku Islands (중국측)분쟁은 ICJ에 가서 한국과 상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Mornane: 일본이 실패할 경우 중 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는가?

동문 동정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정운찬 전 총리 프리스턴대에서 특강



프린스턴대 이슬만 홀 개관식에서 특강, 뉴욕 '위자 나날리'에서 는 네티이 기증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이슬만 홀' 개관식에 참석해 '이슬만과 대한민국'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뉴저지의 위자 나날리에서 기증한 네티이를 돌아보이고 있다.

대한 특강을 했다.

이 기념식은 김용석 총장대교수, 이기순 전 고려대 총장, 이인수 명지대 명예교수,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등도 참석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최근 공공정책 대학원인 우드로 윌슨 스쿨(Woodrow Wilson School) 건물에 '이슬만 홀'을 개관해 3일 'Symposium Rhee 1910 Lecture Hall'이라는 기념 포스터를 설치했다.

이슬만 대학통령은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대 대통령을 지낸 뒤로는 현재는 이슬만 홀의 2번도 역할을 했다.

1978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운찬 전 총리는 '이슬만 기념홀'이 프린스턴 대학 동문들이 이 전 대통령을 박사 학위 취득 100주인 2010년부터 5955달러(48만달러)의 학술 기금을 모

아 학교 측에 전달하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전 총리는 뉴저지에서 열린 한빛고교 동문회 이사를 돕기 위해 정운찬 '2012 위자 나날리'를 오렌지색 네티이를 기증했다.

프린스턴대 이슬만홀 개관식에 참석한 정 전 총리는 뉴저지와 뉴욕에서 위자 나날리 정가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리에 앉고 있던 네티이를 흔쾌히 내놓을 것이다.

정 전 총리는 "41년 만에 프린스턴을 방문하면서 학교를 상징하는 오렌지색과 검정색이 섞인 네티이를 메고 싶어 직접 골랐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학교를 졸업한 지 30여년 만에 이 네티이를 메고 모교 강당에서 특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프린스턴 동문처럼 보이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캠퍼스 들어버렸다"고 애의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위자나 행사에 이슬만 선생의 악구 방법을 기증할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모교인 기금이 뜻있는 곳에 쓰일지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덕 동문 70대에 문예 신인상

미주 한국문인협회 수필본부(강정실 수필위원장)에서 활동 중인 김영덕(사진 왼쪽) 동문은 한국의 문예지로부터 신인상을 수상한 3명 중 1인으로 선정돼 최우수 작가로 선정됐다.

김영덕 동문은 '월미리 인'이라는 수필 작품으로 2012년 가을호 '월미리 포레'에 당선되어 최우수 작가로 선정됐다.

김 동문의 수상작 '월미리 인'은 이문열 40년이 지나 회개 번째 있는 머리를 보며 지나 날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성공한데 끝임 후 서술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지낸 이문열은 의류 비즈니스를 했으며 은퇴 후에는 재미 발명가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당선작 '월미리 인'은 한국에서 교외에 머물고 있던 그가 의류 사업을 하며 겪었던 좌충우돌의 내용이다. 최우수작에는 이화여대 명예교수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사립대학에서 30년간 일했다.***

반기문 총장 '외교관 DJ에 끝날 뻔'

김대중-조지 부시 한미 정상회담 심재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폴 플러미트 콜로라드 매리마운트 대학교의 대담이 출간되기에 앞서 방송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백악관에서 열린 김대중-조지 부시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내게는 '제왕'이었다. (대통령직 이견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끝나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 때 내 외교관으로서의 나의 생애는 끝났을 뻔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버클리대 폴 플러미트 콜로라드 매리마운트 대학 교수가 최근에 집필한 대담 "반기문과의 대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본 유엔"에서 회상한 회화적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반기문 총장은 "한수공 당시 장관이 유엔총회 의사를 맡게 되면서 한수공 장관이 의장직이 사실상 자살을 택한 것 때문"에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 장관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답들은 곧 출간될 예정이다.

한 총장은 이 대담집에서 국제기구 수장으로의 내무도 바쁜 일상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그는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일기를 썼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녹음기를 사용해 '구술(口述) 일기'을 쓴다고 소개했다.

한 총장은 "하루 5개의 수면을 주재하고, 10개의 연설을 한 적도 있으며, 휴식-진주 등 세계 곳곳의 모든 제1권자를 급히 방문하기 위해 세계 각지로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사자에 구두를 받고 연례마다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24시간 열어준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 대담집은 콜로라드 교수가 지난 2010년부터 '아시아의 기인'이라는 한 책과 아래 대고 있는 연차 대담집 제1권이다.

제1권은 리완후 전 싱가포르 총리, 2판은 마하디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3판은 산티아고 전 태국 총리가 각각 주인공이었다.

이같은 대담집 출판 기념회는 11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



커네티켓 K-3그룹 30년 인연 친목

30년간 이어온 지리 모임에서 한국 정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양 각박한 실세로 토론하며 친목을 도모

모교 동문과 가족들 위주로 구성된 "그룹 K-3"의 회원들이 지난 9월 19일 셔본(Sherborn, Massachusetts)에 위치한 석강은 회원(고 김순규 박사 부인)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정가 모임을 가졌다.

지리모임부터 30여 년 전에 시작된 친목회는 대한 정가모임으로 지역 또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순수한 친목 그룹이다.

고향한 박사가 모교 초청교수로 한국에서 2년간 체류할 당시 박 동원(Mrs. 고순환) 회장이 부재중 무인 상태에서 휴직하였으나 그 후부터는 오늘 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안 서로가 절친했던 회원 중 박기용씨와 김순규 박사는 작고하는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이 친목회를 처음 시작한 당시 회원들의 성씨가 K(Kim), K(Ko), 그리고 K(Kim)였기에 그룹 이름을 가졌으며 'Group K-3'라 불렀다. 그러나 그 후 이 삼성 리와 의사, 서지자 임상 김순규를 새 회원으로 맞이하면서 'K-3 Group'은 이제 명칭이 'Group K-3 Plus'라 불리며 한 단계는 앞을 걷는다.

현재 이 그룹의 멤버십은 고순환 박사, 김기훈 교수, 김용연 전기개발 전문인, 김일명 교수, 김진우 심장학과 전문의, 박관용 박사, 서지자 임상 간호사, 석강은은(고 김순규 박사 부인), 이 상현 소아과 의사와 회원의 부인

↑커네티켓 동문 가족들의 모임 그룹 K-3 회원들이 한 자리에 있다. 남자 왼쪽부터 김창수 박사, 김일명 박사, 고순환 박사, 김용연 박사, 김기훈 박사와 이슬만 박사. 그 외는 회원 부인들이다.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고양 강과 화나로 커네티켓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훈 교수인 김일명 박사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김일명 박사는 요즈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특히 앞으로 한국에서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사회적 정치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모교의 목표를 해보는 등 흥미진진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길>

실가 명목들입니다

▶장동호(공대 53)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장동호)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 = 10월 14일 CA주에서. 연락처 818-604-6984

▶최익진(사대 54) 모산상 = 7월 29일 서울에서. 연락처 719-279-3331

▶최승선(공대 76) 부친상 = 8월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정상수(문리대 52) Chicago 동창회 제4회 회장 = 10월 19일 Chicago에서. 연락처 773-561-3838.



남가주 동창회

제5회 커뮤니티 봉사활동 펼쳐

법률·세무·건강 무료 상담

지난 10월 13일 남가주 동창회(회장 서지원 총대 69)가 모교 출신 전문가들의 힘으로 지역 한인 동포들을 위해 각종 법률 문제와 건강, 현명한 재정설계 및 자녀 공부 등에 관한 정보까지 한 자리에서 무료 상담 혜택을 제공했다. LA 지역의 한인 동포들의 건강과 각종 전문 분야 공인을 위한 커뮤니티 봉사 활동에 나선 것이다.

오후로 5회째를 맞은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커뮤니티 서비스' 행사에서는 그동안 40여 명의 모교 출신 전문가들이 나와 동포들을 대상으로 의료,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과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LA 한국교육재단(680 Wilshire Place, LA)에서 한미교육재단(이사장 김지영)과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및 서울대 병원 LA 오피스 특별 후

원으로 열린 이번 커뮤니티 봉사 행사에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무료 광전방 예방접종도 같이 제공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강연도 이뤄졌다.

▶강신용 CPA = '불황기의 현명한 재정설계, 자녀 학자금 전략' ▶이경희 이민전문 변호사 = '현명 이민법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조항기 전문회 = "불황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허리 편안하십니까?" ▶이종진 변호사 = "한국계 재산상속에 관한 법률문제" 등 무료 특별 강연회가 열려 일반 한인 동포들에게 건강과 법률 및 세무 정보를 전달했다.

이 강연 후 오후 1시30분부터는 약 120명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도 이뤄지고, 행사장 외부에서는 수의사들이 나와 애완견 건강상담과 무료 광전방 예방접종도 실시했다.

↑남가주 동창회 서지원 회장이 독감 예방자를 찾기 전 얼굴부터 체크하고 있다.

또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개별 상담실을 마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건강한 노후 및 의학 상담, 자아건강, 법률문제, 세무 상담, 자녀와 소중 및 가정문제, 말 건강 등에 대해 개별 상담을 제공했다.

남가주 동창회 서지원 회장은 "동창회가 율타리를 벗어나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도 봉사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이 5년째를 맞았다"며 "모교 출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에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건 및종 강신용 CPA, 이경희 변호사, 두번째 줄 이종진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세번째 줄 조항기 전문회, 이상대 발신 문인이 이날 각 분야에서 강의도 하는 상담 중이다. 이밖 사인은 IN Kwon Kim Family Dentistry의 이범도 원장(왼쪽)과 김민권 등 문이 고적과 상담중인 장면.



총동창회 및 문리대 동창회 골프대회

총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서지원 총대 69)가 '2012년 남가주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행사를 지난 9월 22일 라하브라의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개최했다.

모두 1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골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골프 경기 이외에도 인한 행사를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문리대 및 문리대 주니어(문인사자) 골프대회

남가주 문리대 동창회와 지난 10월 20일 Lakewood Country Club

~지난 9월 남가주의 라하브라의 웨스트리지 골프장에서 열린 '2012 남가주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에서 추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호수의 물이 11 acres 나 되고 깨끗하고 잘 다듬어진 Lakewood Country Club 에서 참석한 동문들은 마치 야유회를 온 것처럼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 남가주 동창회 김성진 부회장>



문화 칼럼

돌아온 장고, 강남 스타일



박길 (농대 68)
미주 동창회 감사

1. 장창한 미래학 서부. 어느날 새벽, 미시간 들리오는 최미한 새벽의 딸발발소리가 나를 깨웠다. 어둠 속에서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발을 타고오는 한 카우보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장고였다.

그의 형색은 오살했다. 서부영화 통해 내 눈에 익은 카우보이 이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우선 그는 사냥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다. 그는 짧은 상고머리에 두 눈에는 깊은 선글라스를 쓰고, 목에 나비넥타이를 맨 정장차림을 하고 있었다.

비록 카우보이들처럼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모나긴 했으나 허리에 쌍권총을 차치고 앉았고, 캐리 카우보이 코트인 이스트우드처럼 날렵한 제복도 아니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마을 한복판 장창에 자리잡고 혼자서 두리만큼 부르며 정중함을 말문을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씩, 간혹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지극 정창에 모이들었다. 군중들은 정창자를 향해 발발 자음을 하고, 아이들은 웃는 노랫소리, 귀에 쓴 음용에 맞추어 발을 들며뛰며 미 아예를 댄스하였다. 분위기가 점점 흥분되어 갔다.

“넌! 모르겠다.” 제편이고 자존심이 마를 것이 없었다. 모든 웃도들만 말하며라 할 것이 아니라 발치 정중함을 댄스 시작한다. 갑작스레 떨어진 한사람씩 죽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의 씨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와 말초의 현수곡이 진정이었다.

동문 시 감상

“그대와 함께 달린 이 길...”



정희자 (미대 50)

나홀로 달리는 이 자동차 길
이들은 지평을 덮어주고

열 차를 지어 할 달신은
아름다웠다.

열 차를 지어 할 달신은
아름다웠다.

한 발을 잡고 나니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씨이의 물결과 열 것이다.

2. 실로 대박이다. 그러나 꿈같이 생각해 보면 씨이의 대박이 로트처럼 결코 우연한은 아니다. 필연의 결과다. 절기를 만나 찬란하게 피어난 한 송이 꽃이다.

흔히들 미국을 정고로 정신으로 세운 나라라고 한다. 미국 국민들에게는 독립일이 맞는 날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 흑인들, 백시코인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에게는 무자비한 카우보이정도로 세척된 나라가 미국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정고로들은 살아가기를 알세우고 정고의 대박을 조망하며 정중함을 찾아내는 보난자였다, 곧 카우보이들이었다.

일부 카우보이들은 카우보이 정신을 고상하고 듣기 좋은 말로 개작하였다. 또는 뉴트코인이 정신이라고 부르고도 한다. 백인들의 것이 합리하고 사대할 것이다.

미국인들이 열정하는 미식축구 경기와 카우보이 정신의 대표적인 예다. 내가 알기로는 한 한을 넣으면 여섯 점을 취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한 점을 보너스로 얻은 운동경기는 지구상에서 미식축구와 야구, 세이닝의 삼각을 초월하는 쓰러진 운동경기 마시축구나.

3. 언제부터인가 카우보이들의 땅, 미국에 서서히 서양노인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로마제국의 땅과 대영제국의 땅에는 해가 났다. 그러나 그대만 정창을 해가 드는 해도 결코 걸 수 없었고 또 저서는 안된다라는 믿음이기 미국 카우보이 정신의 핵심이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해는 아침에 났다 가 저녁이 되면 지고, 산은 정상에 오르면 언젠가 내려가야 하며, 파도가 높으면 내파를 또한 것은 법이다. 이것이 우주의 섭리이고 창조원리다.

또, 세상은 상대적이다. 가는 길이 있으면 뛰는 길이 있으며, 뛰는 길이 있으면 가는 길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 가는 이치다.

오래 전부터 미국인들의 의식주, 생활종적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안방, 도로, 옷차림, 컴퓨터와 전화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그들의 반대편이라고 할지도 없지않았던 등 양면일이 만든 세상들로 바꾸어 지고 있다.

카우보이를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분하지도 하고 예가 타서 마음이 거꾸로 타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들 무슨 특별한 비책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역사의 도도한 풍물기이고 호풍인 것일...

대부분 미국인들은 이미 화려한 정창, 그 화려한 카우보이 정창을 좋아하고 있다. 굳이 정창을, 민중들을 가릴 것도 없다. 심지어 미국 승리를 바꾸기 위해서 미국 정정인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영 부조리한 것일 것이다.

“미국은 결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씨이는 후루쿠(Fuck)가 아냐!”



김지영 (사대 69)
동창회보 편집위원·변호사

씨이(PSY)는 후루쿠? 그런데 ‘후루쿠’가 뭘 소리? 어는 나라 말?

서울대 출신 로스앤젤레스 시인 다섯 명에게 물었다. “씨어라는 또 어때요?” “실로 말인거요?”

지극히 비화학적인 전파 세대의 것의 결과다.

“후루쿠”란 말,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 얼추 맞았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씨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기사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He’s not only a singer, but also a composer and producer and songwriter as well.” Cho said. 조 사장 말: PSY is no “FLUKE by any standards.”

씨이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FLUKE”는 아니다. 씨이는 보스톤의 명문 바탈리 음악 대학에서 공부도 했고,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작곡가, 프로듀서도 할 수 있다.

“Fluke”란 말은 ‘쇼가 뒷걸음질 치다’ (오지못하다)를 뜻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뭔가 큰 일을 했는데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이다.

“PSY is no fluke by any standards.” “씨이가 김지아는 제 우연한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 라는 의미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해가 좀이 뜨고 재미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씨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기사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한편 들어 보면 그것은 편한다. 다음은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다.

“K-pop is sort of sonic-bibimbap.” 씨이 김지아가 제 뒤라로 정창하기 이전부터 “실로”라고 만드는 비빔밥(sonic-bibimbap)이라는 생각하면 된다.

22

수필

목욕<중>



EISENHOWER<1>



김태환(문리대 60)
EMiniHaven CEO

Peace and Prosperity to the Koreans

For their current peace and prosperity, South Koreans owe tremendously to the Americans who prevented the Communists' overrun of the South in the early 1950's. If we were asked to select one individual who deserves the most credit, it is undeniably President Eisenhower.

On July 27, 1953, after three years and one month of fierce fighting and the huge cost of human lives and properties, hostilities were finally stopped. Officially, a cease-fire was agreed upon and signed by the belligerents; however, uninterrupted peace has been maintained over the Korean Peninsula ever sinc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of 1952, Republican candidate General Dwight D. Eisenhower, mindful of the large human toll of both soldiers and especially civilians during World War II, pledged to "go to Korea" to find the way to shorten the war and bring "honorable" peace, if he was elected. He delivered the most important campaign pledge in Detroit on October 24, 1952 less than two week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saying he would "concentrate on the job of ending the Korean

War."

Sickened by the prolonged war and mounting casualties, Americans elected Ike as their 34th president.

True to his pledge, President-elect Eisenhower flew to Korea, and arrived on December 2, 1952. He inspected the frontline onboard a military reconnaissance plane.

What he found was a wide expanse of rugged mountains and fortified gun emplacements on opposite sides.

Eisenhower concluded that it was not worth fighting each hill at a huge cost of soldiers' lives.

The American army is good at fighting on plains with tanks rolling forward just like those in the Western Europe; however, fighting on hilly terrain is quite a different story. For good or bad for the Koreans, Eisenhower's frontline observation determined the fate of Korea and Koreans.

Later Ike, in his own memoir (Mandate), wrote, "My conclusion as I left Korea was that

"...they did not know that General Eisenhower objected to using the atomic bombs against the Japanese when he was informed that they were ready during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we could not stand forever on a static front and continue to accept casualties without any viable results. Small attacks on small hills would not end this war."

In spite of his resolve to end the war early, President Eisenhower was confronted with resistance within his own cabinet and old, obstinat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When the Republicans nominated Dwight D. Eisenhower as their presidential candidate it was speculated that he was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simply a figurehead and that the party apparatchiks would handle him as they wished. Secretaries Dulles (State) and Wilson (Defense) opposed the idea of a cease-fire while President Syngman Rhee of South Korea insisted on fighting even alone till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chieved.

As the talks on the cease-fire were moving at a fast pace after the death of Stalin in March 1953, Syngman Rhee sabotaged the cease-fire talks by releasing the anti-communist prisoners-of-war from the prisoners' camps. Ike sternly warned the old president that if he blocked the progression of the talks, America would withdraw its troops and armaments from Korea and that he may fight the Communists alone if he so wished.

On top of that, President Rhee was dealt a second blow by the Chinese Communists. In mid-July, they encircled the Kumsung River Salient (in the middle of the frontline) and almost wiped out South Korean soldiers there.

He paid a costly price for his obstinacy. Finally, realizing that the South Korean army alone (without the Amer-

ican army alongside) could not fight the Communist Chinese, Rhee gave up obstructing the cease-fire process and thus, paved the way for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on July 27, 1953.

Because of Rhee's reckless one-sided misdeed, he suffered the costliest casualties of more than twenty thousand soldiers from ROKA (Republic of Korea Army) killed in a weeklong offensive of Communist Chinese forces at the Kumsung River front and the U.S. forces lost about one thousand casualties per week for five weeks from the release of POWs until the signing of the cease-fire.

Those losses of the precious lives of the soldiers should and could have been avoided!

Some people still think we lost the opportunity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of the cease-fire.

They say America should have dropped A-bombs in China to do that. However, they did not know that General Eisenhower objected to using the atomic bombs against the Japanese when he was informed

that they were ready during the Potsdam Conference in July 1945. In addition, President Eisenhower said "we cannot use A-bombs against Asians again less than ten years after Hiroshima" when the French asked him to drop them against Vietnam as the French troops were encircled in Dien Bien Phu in Vietnam in 1954.

Within American military and even civilian circles, there is a saying: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Eisenhower was a soldier himself for most of his life and he should have known that very well. Why and how did he select a not-so-popular alternative?

First,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no victory is fore-

seeable without expanding the war (sphere) and intensifying the ferocity.

The former meant an eventual fight against the Soviets who already had A-bombs by then and the latter would surely increase civilian casualties. Victory for the sake of victory alone is meaningless and it would escalate into the next World War.

Second, as General Omar Bradley (U.S. Chairman of Joint Chiefs of Staff) pointed out, the Korean War was a "Wrong War" being fought at the "Wrong Time, at the Wrong Place, and with the Wrong Enemies", so why should we continue fighting and increasing casualties without any offsetting rewards?

Third, Eisenhower had deep respect for human lives, both ours and even the enemies. This will be better illustrated in the later topic.

Not only did President Eisenhower stop the war in Korea, but he never started another war during his presidency.

Therefore, not a single sol-



dier was killed in combat since the cease-fire set in Korea in July 1953 till the end of his second term in January 1961, and peace was preserved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Ultimate Benefactor of Koreans is President Eisenhower

Almost sixty years after the Korean War ended, South Korea, recovering from the war scars, emerged as a strong industrial country and enjoys membership in the G-20 and ranks in the top ten exporting countries of the world.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a continuous debate over who contributed the most to achieve its present prosperity.

If the Korean War had prolonged for many more years just as we see in Iraq and Afghanistan, and had resulted in continuing destruction of properties and mounting casualties, South Korea could not have achieved as fast and as much as what they have achieved by now.

In this sense, I strongly believe that President Eisenhower is the ultimate benefactor of Koreans by bringing the Korean War to an end and giving peace to the Koreans.

Therefore, Koreans in South Korea as well as here in the States should appreciate Ike's determination and eventual success in putting an end to the ferocious war in Korea despite many saboteurs all around him.

Another aspect that we cannot afford to notice is the United States opened its market for Korean-manufactured goods, starting with clothing. What little money the Koreans earned from the exports warranted to rebuild the country from the devastation from the war.

<Continue>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록비·기타 후원금(*2012년 7월 1~ 10월 20일까지)

2012.7월 동창회비

[illegible]

광고

[illegible]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
에 보내주십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2년 7월 ~ 2013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전화후원금	동창회비 (구독료)	업소측 광고비	일반광고비
연\$200	2011-2012년 \$75		명판크기 (3.5" x 2") \$100
연\$500	2012-2013년 \$75		1/8인치 (5" x 4.5") \$200
연\$1,000		다자인 명판 1/2 \$200	1/32인치 (10" x 4.5") \$400
기타		다자인명판크기\$500	1/2인치 (10" x 6.7") \$600
			전면 (10" x 13.5") \$1000
비밀번호: 122598,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지불방법 (Check 또는 Card)		e-Mail: snuausa@yahoo.com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310-515-7888>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Cardholder's Name:		Expire Dat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미주 동문 협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Mackone Development Inc.
양대촌(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원(공대 58)
(213) 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염효원(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상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록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5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6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이광현 공인회계사
이광현(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장준 공인회계사
장준(인문대 85)
Tel: (818) 772-2811
9209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Jung Mo Park & Co
박정모(문리대 66)
(213) 383-1330
3255 Wilshire Bl., #1700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632

ANMO Consulting Co.
강산홍 공인회계사
강산홍(시대 73)
213-36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리테일러/보육/무역

한남채민 (리테일러/상표)
하기원(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세계보석
강정현 (음대 59)
(610) 627-0547
2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현정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Pacific Group USA(대평양상사)
하상현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시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기술/오물/목업업

LinkTV Media.
김혁택(공대 66)
818-768-5494
P.O.Box 1368 Sun Valley, CA 91352

우주개발/기타 개발

JAY H. CHUNG, Ph.D.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arine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희(공대 64)
10874 Hope Street - P.O. Box 9034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Tel: (714) 652-2200 Fax: 1-714-652-2042
http://www.jaychung.com

비영리법인

한미 교육 연구원

자주환
한미 교육 연구원 대표
11111 Wilshire Blvd, Suite 1111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5-1111
Fax: (213) 385-1111

교육/강당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66-83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서비스/자동차

A.P.W. 자동차 부품
서동훈(시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676-473-431
4132 Buford Hwy Doraville GA 30096

수의학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학대 66)
909-627-056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성범(수의학대 67)
510-25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학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학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건축 컨설턴트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운동/유통/등관/인테리어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강관 도매
이영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63)
213-36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약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성 (약대 66)
(714) 638-6233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의료/치과	교회	비영리법인 해방 극지 에너지	병원 / 치과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라 카나다 한인교회 북고 현(공대 65) 819-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 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uite 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식품/음식점 강남회관 Kang Nam Restaurant 323-93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MD,VA 워싱턴DC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GA 조지아 리태일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의료/내과/전문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8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3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8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김일영 성상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6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개산관리 IPM Wo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t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IL-IN 시카고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치과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종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Fairne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 이준우 치과 이준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대 70) 310-6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변호사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성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930 Annandale VA 22003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익사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원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682-3800(0) 714-323-8612(C) 205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북 가주 장단 /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6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시댁대 동문과 동문자녀, 학벌확인, 장지선(상대 66)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Ste.200 Oakland CA 94609 www.29thst.com	부동산 / 용접 BPS Appraisal Company 박봉원(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케이발 LA Supply 전승택(사대 60) (562)-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taFe Springs CA 90670	수익사 / 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 합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또한 개별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동문 업소록을 정비합니다. 이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여러 사업 내용을 미주 각 동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업소록에 게재되는 동문들 중 일부가 보내오는 광고비는 동창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들 중 일부는 그동안 업소록 게재에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내지 않았으므로 광고비를 내는 동문들에 대한 업소록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더 보기좋게 구성하여 게재해드릴 계획이니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한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의료/전문/치과/전문 박희태 한의원 임희래(간과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 고침 >

지난 9월호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에 대한 특집에서 글쓴이 이재진 명예교수가 강연한 내용(인) 중 편집상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1. 일본이 UN에 탈북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탈북.
 2. Truman과 MacArthur의 회담 장소는 압록강이 아니라 Wake Island.
 3. Gen. Mark는 Gen. Mark Clark 임.
 4. 조선전쟁은 38도선이 아닌 새로운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임.
 5.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은 2007년 4월이 아니라 2007년 10월임.
- 이상으로 혼동을 주어 이재진 명예교수와 동문 제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편집후기>

'편집후기'

○-워싱턴 동창회보 간사는 모교 제학정도로 구성원 BNCWS 팀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2 BNCWS World Cup' 에 참가해 Semi-Final까지 진출한 기사가 1면에 게재됐다. 그런데 워싱턴 동창회(회장 함은진)에 77가지를 물어 받은 바 알았으므로 세가지가 부사처럼 붙은 것으로 알려져 미주 동문들은 물론 국외의 동문들에게도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고 있다. 특히 미주 동창회 모인원(문리 63) 자기 회장을 이 편만 아니

라 이 대회의 사진과 동창회보 기사를 위한 자세한 자료까지 신속하게 편집실에 제공해주어 10월호 미주 동창회보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장으로 글을 올리는 비이다.

○-부들 등 겹조사는 동창회보 편집실은 아주 연로하시거나 불치의 질병으로 동문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그런데 이같은 소식을 동창회보 편집실에 직접 알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동창회보에는 아까운 소식을 알리는 날이 있으니 부들이나 다른 겹조사는 꼭 동창회보에 게재해 모든 동문들이 소식을 공유하도록 했으면

한다. 내용은 '가'(이름과 간과대학 및 입학연도), 연세, 이디서 작고했는지' 등이다. 부디 많이 이용하길...

○-독집기사 오류에 대한 변명: 지난 9월호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은 미국내에서도 제법한 동문 학자들의 강연과 많은 분들의 강연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특집 기사 중 오류에 대한 정정기사(원호의 고집) 참조를 게재하게 할수 없다. 이 Workshop은 2012년 9월호 마감 일정에 이 행사기간에 마감 5일만에 인쇄를 해야 했던 시간관계상 이런 오류가 나고도 말았다.

간영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필자가 직접 강연을 취재해 전문을 작성하거나 축약한 요약문을 게재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하는 현역 기사 실장부 의원 속기과 세 명의 강연 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기록하고 파워포인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축약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9월호 마감 일정에 이 행사가 끝나고 불과 5일만에 인쇄를 해야 했던 시간관계상 이런 오류가 나고도 말았다.

이에 대한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랄 뿐이다.***

<편집후기>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자치회장	김상진(문리 66) 714-399-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자치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68 changsokkimcnc@hotmail.com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68 changsokkimcnc@hotmail.com
자치회장	최선주(간호 68) 781-674-2498 yoonpark68@yahoo.com
뉴잉글랜드	자치회장 장수민(유대 76) 978-264-2988 sounline@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준(공대 73)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자치회장	윤수진(유대 77) 972-248-8811
텍사스 마운틴스	회장 표한술(치대 58) 303-6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치회장	정은옥(간호대 75)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미네소타	자치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27@gmail.com
샌디에고	회장 김형호(의대 71) 706-922-0748 fhmcclUSA@gmail.com
시카고	자치회장 오원환(문리대) yhoth@rathson.com
애리조나	회장 유재준(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자치회장	배석현(공대 78) 907-561-0818
알래스카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오레곤	자치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오하이오	자치회장 함은선(유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워싱턴DC	자치회장 유석진(문리 64) 425-670-9067 spck@rocket.com
워싱턴주	회장 배유한(공대 73) 801-474-1945 you.bae@yahoo.com
유타	자치회장 박민(유대 80) 770-449-0000 minpakgh@yahoo.com
조지아	자치회장 김정호(공대 74) 770-814-0618 jhkim@noba.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8) 512-591-7739 267-902-1077 yjlee11023@yahoo.com
자치회장	민홍식(수리대 60)
필라델피아	회장 이성진(공대 68)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자치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 919-530-6451 khk@ccc.edu
자치회장	김용수(수리 75) 808-394-2369 ykim@ncmail.edu
하와이	회장 구명선(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n@yahoo.com
자치회장	이성진(공대 70) 918-687-1115 918-360-9178 wanuradad@gmail.com
하들랜드	회장 박순덕(상대 58) 713-984-2656 taksoond@yahoo.com
휴스턴	자치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0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윤희(자연 82) 403-820-8261 delhousied@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성(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사) · 이정택(공) · 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자치 회장: 오인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노영호(공)

집행부 위원

사무총장: 송정우(상)
총무국장: 박복지(문)
재무국장: 강석현(상)
사업국장: 이광희(문)
생외국장: 이상대(농)
감사: 김영민(법) · 박영민(농)
IT개발위원장: 이홍도(공)
기대발원회장: 김병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김은중(상)
상고인: 박석준(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훈
편집위원: 조동훈(의) · 박양준(문) · 김재영(농) · 나철삼(문) · 이홍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연영(문) · 김홍희(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치) · 김기태(사) · 조동준(사) · 최홍환(사) · 박순(WA, 치) · 최길영(치) · 이광희(사) · 정홍배(PA) · 윤상래(NE) · 김창수(NY) · 임승준(SF) · 정석재(CH) · 이석구(NY)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 · PA)
위원: 한재원(의 · IL) · 이민영(법 · TX) · 윤상재(수 · NE) · 김지영(사 · LA) · 송영남(농 · NY) · 함은선(문 · WA)

·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은 이기훈 편집주간 snuausaik@gmail.com
· 인쇄: China Times Printing, INC.
445 N. Main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cof.com

888-832-7400
888-832-7404

facebook.com/jaycof Foods
twitter.com/jaycof foods
youtube.com/user/jaycof foods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818-768-5494

P.O. Box 1368, Sun Valley CA 91352

www.ds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 (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인혜

- **AMT가 인정하는 프라임 비엔도** : 규율과 질을, 서비스까지 고쳐야 인정하는 No.1 비엔도입니다.
- **배우자 기업유치** : 전문가와 있을 수 있는 기업에너지를 소중히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동업자의 책임 프로그래밍**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형 프로그래밍으로 이상향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화합심리** : 본국 화합심리 인연을 통해 결혼, 2인 1행이 되는 차용 중 가장 잘 맞는 사람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 ABOUT TAYCO | PRODUCTS | CUSTOMERS & AWARDS | FACILITIES | WHAT'S NEW | CONTACT US | HOME |



Products Home Page

Flexible Circuit Heaters
High Temperature Heaters
Flexible Cable & Harnessing
Temperature Sensor
Specialty Products

Latest Development

President & CEO 정재훈(공대 64) Ph.D.

714-952-2240

"OVER 30 YEARS OF PROVEN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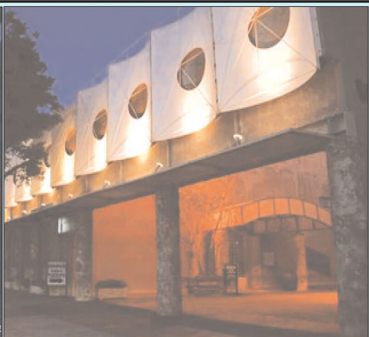
AEROSPACE

MEDICAL

DEFENSE

NUCLEAR

SEMI-CONDUCTOR



“언제나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Woo Lae Oak

310-652-4187
170 N. La. Cienega Blvd.
Beverly Hills, CA 90210



“감사합니다!”

제2회 Brain network WorkShop' 을 위해 특별 찬조해주는
다음의 동문(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김은중(상대 59)
- ▶ 홍명기(미래재단 이사장)
- ▶ 이태로(법대 50)
- ▶ 이기준(법대 54)
- ▶ 이병준(상대 55)
- ▶ 양은혁(상대 56)
- ▶ 최용완(공대 57)
- ▶ 이종표(의대 58)
- ▶ 박종수(수의 58)
- ▶ 노명호(공대 61)
- ▶ 김재영(농대 62)

- ▶ 이종도(공대 66)
- ▶ 김병연(공대 68)
- ▶ 백옥자(음대 71)
- ▶ 강호석(상대 81)
- ▶ 이경희(문리 83)

평통자문회의

- ▶ 최재현(수의 66)
LA 지부회장
- ▶ 한광성
OC-SD지부회장

